

2017

독일의 청소년 정치참여를 통한 민주시민교육:

‘U18 프로젝트’와 ‘청소년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조 철 민 성공회대학교



- ▶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은 교육정책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국외 정책 및 사례 등을 소개하고자 국외 자료, 보고서 등을 번역, 요약 및 발췌하여 일부 재구조화한 내용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또한, 이 원고는 연구자의 전문적 시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교육정책네트워크 및 본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I 독일 정치교육과 청소년_1

- 1. 독일의 정치교육 1
- 2. 청소년 정치교육 3

II 청소년 정치참여_6

- 1. 청소년 정치참여 감소: 도전과 응전 6
- 2. 청소년 정치참여와 교육 8

III 투표: 'U18'_11

- 1. 개요 11
- 2. 활동 13
- 3. 교육기제 16

IV 의사결정: '청소년 의회'_20

- 1. 개요 20
- 2. 활동 23
- 3. 교육기제 26

V 우리에게 주는 함의_31

- 1. 한국의 경우 31
- 2. 변화를 위한 단초 34

참고문헌 38

I

독일 정치교육과 청소년

1. 독일의 정치교육¹⁾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에 조응하는 독일의 개념은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이다. 사실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전제했을 때, 정치의 주체가 시민이라는 점에서 두 개념은 같은 것이다. 하지만 학습의 주체인 ‘시민’이 아니라 학습의 내용인 ‘정치’를 강조한 것은 독일 특유의 역사적 배경에 기인한다. 그리고 학습 내용과 관련해서 환경교육, 인권교육과 같은 용례는 인권이나 환경과 같은 가치를 중심내용으로 다룬데 비해, 정치는 수단이나 행위의 의미를 띤다. 이런 맥락에서 1968년 연방내무부가 발표한 지침은 독일 정치교육의 기본적인 성격을 잘 드러내 준다.

“첫째, 전통적인 정치교육의 주제인 반나치즘과 반공산주의는 앞으로도 견지돼야 할 지향이다. 둘째, 정치교육은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조화’와 ‘칭송’으로만 표현해 왔다. 또한, 공동체와 협력관계의 지나친 강조는 정치의 본질을 오해하게 만들기 쉽다. 향후 좀 더 실제적 민주주의의 이해를 위해 이해관계, 갈등, 권력과 같은 개념들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다시는 시민들이 정치적 절차에 의해 독재자를 선출하는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바로 그 정치를 강조하는 교육을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그 정치교육의 내용은 정치에 관한 이해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정치에 관한 이해는 민주적 의식을 통해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비판적 시민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가 된다.

“연방정치교육원의 임무는 정치교육을 통하여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민주주의 의식을 확고히 하며, 정치적 협력 자세를 강화 시키는데 있다.”²⁾

1) 별도의 인용표기가 없는 내용은 연방정치교육원 홈페이지(<http://www.bpb.de>)를 참조했음.

2) 연방정치교육원에관한법령(Erlass über die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제2조.

정치교육에 대한 강조는 제2차 세계대전 후 국가 재건기에 시작됐다. 1952년 나치(Nazi) 정권 시기 폐쇄됐던 ‘향토봉사를 위한 연방본부’(Bundeszentrale für Heimatdienst)³⁾가 부활하면서 독일 정치교육이 본격화 되고, 정치교육의 원형이 형성됐다. 2차 대전 당시 승전국들의 요청을 배경으로 정치교육의 도입결정은 어렵지 않게 이루어졌지만, 독일 정치교육이 뿌리내리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교육하는가에 관한 끊임없는 논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논점은 주로 정치교육의 지향에 관한 논쟁,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집권 정당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정치교육의 이념적 편향에 관한 우려였다. 여기에는 정치교육이란 해방적인 것이냐 시대 긍정적인 것인가, 시스템 강화적인 것이냐 시스템 변화적인 것인가 하는 주제들이 포함된다. 즉, 신좌파가 주창하는 ‘해방’과 보수파가 주창하는 ‘합리성’의 논쟁이었다(전득주, 2000: 19). 이런 지난 논란은 1976년 바덴-뷔르템베르크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이루어진 보이텔스바흐 협약(Beutelsbacher Konsens)으로 일단락된다. 이는 정치교육의 내용에 관한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원칙에 관한 기본적인 합의로서 3가지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⁴⁾ 이후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3원칙은 학교는 물론 학교 밖을 포함한 모든 정치교육의 기본적인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런 지속적인 합의 과정은 정치적 위기상황 속에서도 정치교육이 흔들림 없이 유지되는 밑거름이 됐다(모테스, 2015: 24). 독일 정치교육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의 중심에는 국가기관인 연방정치교육원이 있다. 연방정치교육원의 위상에 관해서도 집권당의 성향에 따라 정치교육의 방향과 내용이 좌지우지되는 이른바 ‘관제화’(管制化)의 우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연방정치교육원 내에는 일종의 ‘작은 의회’가 존재한다. 공식적인 기구인 감독위원회(Kuratorium)인데, 연방의원 22명⁵⁾으로 구성된다. 보이텔스바흐 협약이나 연방정치교육원의 형성과정을 통해 정치교육은 그것을 만드는 과정도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정치과정을 통해 만들어져야 함을 일깨워 준다.

3) 현재 연방정치교육원(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의 전신임.

4)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세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압의 금지’(überwältigungsverbot)는 교육내용의 주입, 교화, 조작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문제점과 논쟁에서 생기는 모든 의문을 공개하는 투명성이 수반된다. 둘째, ‘논쟁’(kontroversität)으로 학습주제와 관련해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학문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논쟁적인 사안을 논쟁을 통해서 명백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셋째, ‘이해관심 지향’(interessenorientierung)으로 학습자들은 자신의 질문과 의견을 말로 표현해야 하며, 그들의 정치적 이해와 관심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5) 정당별 연방의회 의석 비율에 따라 구성됨.

독일 정치교육의 중심기관인 연방정치교육원의 주요사업은 크게 3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첫째, 출판간행물 등 정치교육을 위한 자료발간이다. 이 사업은 신문및 잡지 등과 같은 정기간행물의 발간과 정치교육 관련 서적의 발간으로 나누어진다. 이것은 정치교육 관련 서적의 발행과 판매가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분야가 시장에서 위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련 서적들이 발간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아직까지 인쇄 매체가 발간물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점차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멀티미디어 형태의 자료들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둘째, 정치교육 관련 학술대회나 행사에 대한 지원 사업이다. 여기에는 토론 및 실습형태와 같은 성인정치교육 행사지원, 학교 외 성인교육의 교육자를 위한 재교육 차원의 각종 세미나, 성인정치교육 세미나에 활용하기 위한 학습자료 출간, 현지답사 등이 포함된다. 셋째, 협력기관·단체의 정치교육 활동 지원이다. 매년 재단, 종교기관, 시민사회단체 중 연방정치교육원에 의해 인정을 받은 주체들에게 공공재정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신두철, 2005: 553-554). 연방정치교육원 예산집행에 있어서 자체사업 예산과 협력기관·단체 지원예산의 비율은 4:6 가량이다(박병석, 2000). 연방정치교육원은 지원된 예산에 관한 회계보고를 연방회계청(Bundesrechnungshof)에 제출해야 한다(음선필, 2013: 58).

2. 청소년 정치교육

연방정치교육원은 성인을 위한 정치교육 뿐 아니라 학교 안팎의 청소년 정치교육에 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통적인 사업에는 연방주교육부장관회의(KMK)의 심의를 거쳐 학교에 배포되는 ‘정치교육정보’ 잡지의 발간이나, 정치교육 담당 교사들을 위한 연수, 1971년부터 시작된 연례 정치교육 학생경시대회(Schülerwettbewerb zur politischen Bildung) 개최 등이 포함된다(박병석 2000). 1980년대 들어서는 1970년대의 격렬한 논쟁이 잦아들면서, 학교 정치교육이 실용주의적이고 다원화 된 경향을 띠게 된다. 즉, 학생들이 정치교육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법에 대한 관심과 주별로 다양한 교육내용들이 나타났다(전득주, 2000: 23-25). 이에 따라 연방정치교육원은 청소년들을 가르칠 교사나 교육훈련가를 핵심집단으로 설정해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후 독일 통일 이후인 1990년대에는 동서독 학교 및

주정치교육원 간 자매결연을 통한 정치교육은 통일 후 사회통합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오일환, 1995: 537-538). 1996년에는 연방정치교육원 발간 자료가 학교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되는지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정치교육 전용 사이트도 별도로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⁶⁾

학교 정치교육에 있어서 표준적 내용 구성에 관한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는데, 동시에 국가에 의한 정치선전 혹은 획일적 교육에 대해 우려하는 논란도 지속됐다. 하지만 독일 통일 후 학교 정치교육 내용의 표준화에 관한 논의가 진전됐고, 2000년대 들어 그 결실을 맺게 된다. 2003년 교육부장관, 문화부장관회의 의장, 에크하르트 클리메(Eckhard Klimeme) 교수가 제출한 '국가교육표준의 발전을 위하여'(Zur Entwicklung nationaler Bildungsstandards)에서 권장된 기획에 따라 '독일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정치교육과 교수법협회'(GPJE)가 학교 정치교육의 표준을 정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한 '국가교육기준 요구안'(Anforderung and nationale Bildungsstandards für den Fachunterricht in der Politischen Bildung an Schulen)이 발표됐다. 우선 교과목 명칭은 초등학교에서는 '일반사회와 자연'(sachunterricht) 과목으로, 이후 단계의 학교에서는 정치교육으로 표기하기로 했다(GPJE, 2008: 16). 국가교육기준 요구안에 따르면 정치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함양해야 할 역량은 '정치적 판단능력', '정치적 행동능력', 그리고 '방법론적 활용능력'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 3가지 역량요소를 기반으로 대학 진학 전 의무교육과정을 초등학교, 주요학교, 인문계 중고등학교, 실업학교 등 4단계로 세분화해 표준적인 교육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표 I-1〉 독일 정치교육의 역량요소

정치적 판단능력	정치적 행동능력
정치적 사건, 문제, 논쟁 및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스스로 가치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성찰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의견과 설득, 관심을 표명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적절하게 자기주장을 하며 합의과정을 이끌어 나가고 타협할 수 있는 능력
방법론적 활용능력	
경제적, 법적, 사회적 문제와 같은 시사적인 정치문제에 대해 독자적으로 파악하고 (방향을 잡아나가고), 전문적인 주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룰 줄 알며, 자신만의 정치심화 학습을 조직할 수 있는 능력	

출처: GPJE(2008: 12)

6) 청소년 정치교육 전용사이트 <http://www.fluter.de>, 어린이 정치교육 전용 사이트 <http://www.hanisauland.de>, <http://www.17juni53.de>.

한편 학교 밖에서도 청소년 정치교육의 기회들이 제공되고 있다. 정치교육의 실행은 정치재단, 교회, 시민대학 등 다양한 주체들이 담당하는데, 청소년단체들도 다양한 정치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여기에는 자율청소년센터, 청소년휴게소, 연방청소년협회에 소속된 각종 단체가 포함된다. 특히, 연방청소년협회에 소속되고 연방청소년계획에 의해 부분적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전국적 규모의 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정창화, 2004: 405-406). 또한, 정치교육을 실행하는 정치재단, 교회, 단체 등의 연합체인 연방정치교육위원회(Bundesausschuss Politische Bildung)⁷⁾도 청소년 정치교육 지원을 주요 활동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청소년 정치교육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인 GEMINI(Gemeinsame Initiative der Träger Politischer Jugendbildung im bap)가 있다.

청소년 정치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현실적인 이유는 청소년층의 정치·사회적 무관심이 증가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이미 1980년대부터 개인주의 성향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새로운 사회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교수법에 주관적 요인을 고려하려는 노력이 시작된 바 있다(정창화, 2004: 402). 최근 연방정치교육원은 새로운 대상집단으로 청소년과 이주민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학교교육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내용과 형식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방정치교육원은 청소년 정치교육과 관련해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와 협력하는 가운데 특히, ‘청소년 교육’ 부서와 함께 청소년들의 정치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들이 일종의 정치교육 소외계층이 될 경우 정치적 책임과 참여가 감소하고, 새로운 극단주의 경향 등 잠재적인 사회적 위기요소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정치교육원은 2007년 정치적 소외계층, 극단주의 관련 부서를 신설하기도 했다.

7) 앞서 언급한 연방청소년협회도 이 위원회의 회원단체이며 연방정치교육위원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bap-politischebildung.de>) 참조

II

청소년 정치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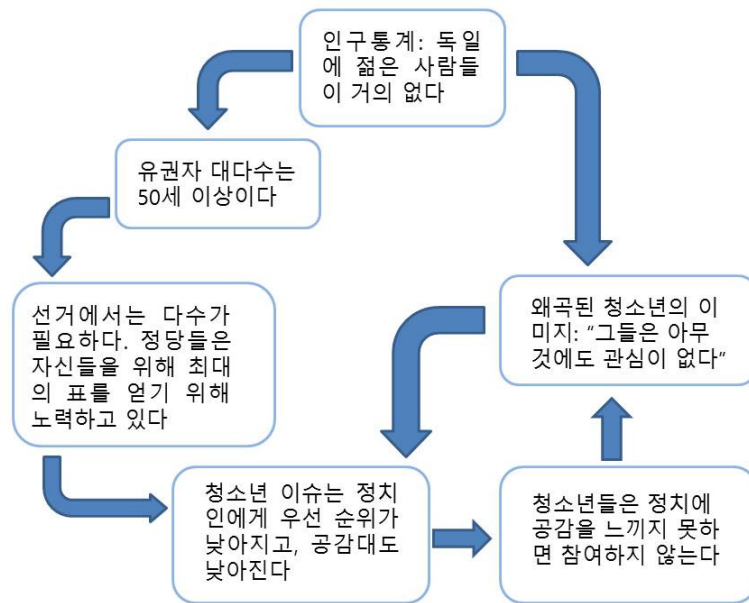
1. 청소년 정치참여 감소: 도전과 응전

청소년 정치참여(Jugendliche Partizipation)는 민주주의의 안정적 유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러한 이유는 정치참여가 민주주의의 수준을 보여주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한 사회의 정치 수준은 시민들의 정치참여 범위가 얼마나 크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존재하는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참여가 높을수록 시민사회가 확고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것이 현대 시민사회의 핵심이다(비드마이오, 2009: 37-38). 독일의 청소년 정치참여에 관한 여건은 훌륭하다. 한국은 만 19세부터 선거 및 정당가입이 가능하다면 독일의 선거연령은 18세이고,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한 청소년들은 주로 정당 산하 청소년 조직에서 활동한다. 독일의 선거연령이 21세에서 18세로 바뀐 것은 1970년인데, 이와 관련하여 1969년 취임한 빌리 브란트(Willy Brandt)는 “(젊은 유권자들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함께 결정하고 결과의 공동책임자가 되는 것이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근에는 연방의원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추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⁸⁾

하지만 최근 독일에서도 청소년들 사이에 ‘정치적 거리감’(Politikdeistanz)이나 ‘참여 싫증’(Partizipationsverdrossenheit)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Abs·Roszen·Nina, 2007: 51). 이러한 정치에 대한 젊은 층의 변화에 대해 ‘가능하면 정치적 논쟁을 피하려 하고 그 대신 소파에서 더 많은 평온을 누리려 하는 시대’로 향해 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신두철, 2011: 34). 반면 청소년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정치가 그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논리도 만만치 않다.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들 사이에서도 전통적인 정치참여(선거, 정당활동 등)는 감소하는 반면, 비전통적인 정치참여(시민발의, 집회·시위 등)는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현실은 정치참여 감소현상에 대한 사려깊은 접근이 필요함을 암시한다. 정치 싫증 현상은 청소년들의 정치가에 대한 싫증과

8) ‘16살 선거원을 이야기 하는 나라’(한겨레 21, 2017.03.02.)http://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43164.html

정당에 대한 싫증이 진짜 문제라고 할 수도 있다(비드마이오, 2009: 13). 2017년 연방 하원선거의 경우 유권자 61만 6천여 명 중 절반 이상(56.1%)이 50세 이상의 노년층이다. 한편 4.8%가 처음 투표하는 유권자이고, 그 범위를 30세 이하로 넓혀도 15.4%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은 전반적인 정책들이 청소년 친화적으로 되기 어려운 여건을 조성한다. 대부분의 정책 결정들이 예를 들어 청소년정책, 교육정책, 사회정책, 이민정책, 환경정책, 노동정책, 재정정책, 외교정책 등 청소년이나 청년층은 단지 한계상황의 정책대상 집단으로 간주되는 사이,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비관과 불신이 형성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정치인들에 대응해 정치적 압력을 형성하는 주체로 설정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다(U18, 2017).



[그림 II-1] 독일의 청소년과 정치에 관한 사회현상

출처: U18(2017). Konzept.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청소년의 정치참여는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전통적인 정치참여가 청소년들에게 효능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청소년 정치참여 감소라는 도전에 대한 응전은 청소년들에게 효능감을 줄 수 있는 정치참여 기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독일 청소년의 정치참

여 기회는 주로 지역사회 수준에서 많이 주어진다. 이는 청소년 정책이 연방이나 주 수준보다는 지역사회 수준의 임무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지역사회 수준의 참여가 더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청소년 정치참여에 있어서 정당 활동이나 집회·시위와 같은 전통적인 방식 외에 새로운 정치참여 형태를 주목하고 있다(BMFSFJ, 1999). 첫째, 대의적 참여(repräsentative beteiligungsformen)는 청소년 의회와 같이 선거를 통해 청소년 대표를 선출하는 형태다. 둘째, 열린 참여(offene beteiligungsformen)는 청소년 회의, 청소년 콘퍼런스와 같이 관심 분야에 대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형태다. 셋째, 프로젝트 기반참여(projektorientierte beteiligungsformen)는 한시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창의적인 방법으로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는 형태다. 넷째, 기존 성인들의 의회에 어린이·청소년 대표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형태다. 다섯째, 정치인들과의 접촉으로 학생들이 학교나 의회, 혹은 제3의 장소에서 정치인들과 만나 대화하는 형태다.

2. 청소년 정치참여와 교육

정치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시민이 갖춰야 할 기능에는 정치적 사안을 설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적기능과 함께, 동료 시민과 상호작용하고, 정치과정을 감시하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참여기능이 필수적이다(허영식, 2012). 후자의 경우 정치교육과 함께 실제 다양한 층위의 정치과정에 참여해 봄으로써 체득할 수 있다. 나아가 참여 기능을 세분화해보면 정치적 무관심, 정치에 대한 정보 인식, 정치적 판단능력, 정치적 개입능력 등 4단계로 나뉘 볼 수 있다(비드마이오, 2009: 18).

이와 관련해 정치참여와 다른 유형의 참여를 구분해야 한다는 논의가 부각되고 있다. 그 배경은 벤자민 바버(Benjamin R. Barber)의 ‘강한 시민사회가 강한 민주주의를 만든다’는 담론의 영향 속에(바버, 2006), 정치교육에 있어서 정치참여는 기피하고, 사회참여는 강조하는 경향에 대한 정치교육계의 우려다. 이들은 사회참여의 활성화가 곧 정치참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회참여는 근본적으로는 ‘정치적-교육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만일 정치적 결과를 기대한다면 이러한 활동은 ‘정치적 차원’을 통해 계획돼야 한다(신두철, 2011: 40-41). 대체로 사회참여는 그 목

적이 정치참여와는 반대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치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합과 후원에 주로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정치교육을 위해서는 참여 개념의 ‘탈정치화’를 문제시하고, 정치적인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비드마이오, 2009: 15). 이에 따라 사회참여에 대한 자발성을 정치참여로 나타낼 수 있도록 의도적인 정치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한다(신두철, 2011: 42). 정치참여와 다른 유형의 참여에 대한 구분은 민주주의 학습의 단계이론적 모델로 이어진다. 게하르트 힘멜만(Gerhard Himmelmann)은 민주주의의 학습을 삶의 형태, 사회형태, 지배형태라는 3가지 단계로 분류한다. 그리고 생활에서의 참여에서, 사회참여로, 그리고 다시 정치참여로 심화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표 II-1〉 민주주의 학습의 단계론적 모델

	삶의 형태	사회형태	지배형태
측면	개인적·사회적·도덕적 전제조건	다원주의, 갈등, 경쟁, 공공성, 시민사회	민주주의/정치, 권력, 통제, 인권, 국민주권, 법, 의사결정절차
목표·단계	자기학습 자아능력	사회적 학습 사회적 능력	정치학습 민주주의 능력

출처: Himmelman(2004: 18)

최근 들어 비교적 수월하다고 여겨지는 사회참여가 정치참여를 대체하려는 경향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사회참여가 자동적으로 정치참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이와 관련해 2015년 독일 정치교육 주체들은 프랑크푸르트 성명(Frankfurt Erklärung)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향후 정치교육에 대한 좀 더 비판적이고 해방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정치교육이 유럽과 전 세계적 맥락에서 권력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천명했다(모테스, 2015: 28). 하지만 사회참여와 정치참여, 사회교육과 정치교육을 현실에서 구분할 수 있을지, 혹은 그런 구분이 유용할지는 역시 의문이 남는다. 문제의식은 상호구분에서 출발했지만, 그 해결책은 상호연결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연결이 약한 집단은 민주주의 규범을 덜 지니므로, 교육의 일차적인 목적은 사회통합이 돼야 한다고 말한다. 동시에 사회통합이 저절로 정치적 민주주의의 학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Reinhardt & Tillmann, 2002). 즉, 사회참여와

정치참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사회참여가 정치참여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사회적 역량이 사회참여에만 부여된다면, 정치참여는 왜소해질 것이며, 이는 다시 사회참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생활과 사회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참여들이 정치적인 차원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치참여와 사회참여를 구분해야 한다는 논리는 대체로 비판과 정치참여 활성화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는 당위적 요청에 그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서 논의한 청소년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참여형태의 고안이 필요하다. 그런데 독일은 이미 새로운 형태의 정치참여형태를 시도하고 있다. 아이러니 하게도 이런 실험은 '정치' 보다는 '사회', 즉, 시민사회 주체가 주도하고 있다. 이후로는 독일에서 시도된 대안적 형태의 청소년 정치참여 활동 중에서 적극적인 참여형태를 띠는 대표적인 사례로 청소년 모의투표 'U18'과 청소년의,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의회인 '청소년 의회'(Jugendparlamente)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자는 새로운 형태이면서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제인 '투표'를 다루고 있으며, 후자는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형태이면서 또 다른 민주적 기제인 '의사결정'을 다루고 있다.

III

투표: 'U18' 9)

1. 개요

U18은 정치교육을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로,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선거에 참여해 자신들을 정치적이고 가시적으로 표출하도록 이끌며, U는 아래(Unter)를 뜻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청소년 이슈를 정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U18은 기본적으로 열려있는 기획으로, 자기조직화 된 청소년 활동에 적합하다. 정치교육은 호기심과 자기주도성을 기반으로 발전한다. U18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정치적 바람을 표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공공의 이해 관심의 한 중심에서 미래에 관한 정치적 토론이 이루어진다.

U18 투표는 공식적인 선거 9일 전에 이루어지며, 청소년들이 투표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U18은 청소년들이 직접 선택하고, 스스로 의견을 결정하고, 정치 시스템을 검토하고, 스스로의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스스로의 정치적 관심과 선호를 인식하고 토론하게 된다. 각 정당의 정책을 질문하고 비교함으로써 투표를 통한 선택을 내리게 된다. 이를 위해 연령대별로 유용한 자료, 참여, 활동, 이벤트 등이 조직되고, U18 참여 청소년들이 지역 정치인과 접할 기회가 제공된다.

U18 투표에는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청소년은 제약 없이 참여 가능하며,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위해 지역별 사무국을 개설해 두고 있다. 전국 사무국은 베를린에 있고, 17개 지역에 권역별 사무국을 두고 있다. 각 사무국의 운영은 대부분 해당 지역의 청소년단체들이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U18 프로젝트는 독일어린이재단(Deutschen Kinderhilfswerk), 독일연방청소년연합(Deutschen Bundesjugendring), 여러 청소년협회들(Jugendverbänden), 베를린U-18네트워크(Berliner U18-Netzwerk),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와 연방정치교육원의 후원을 받고 있다.

9) 별도의 인용표기가 없는 내용은 U18 프로젝트 홈페이지(<http://www.u18.org>)를 참조했음.

〈표 III-1〉 U18 사무국 개설 현황

지역	운영주체
전국 (Bundeskoordinierung)	독일연방청소년협회(Deutscher Bundesjugendring e.V.)
바덴-뷔르템베르크 (Baden-Württemberg)	바덴-뷔르템베르크청소년연합 (Landesjugendring Baden-Württemberg e.V.)
바이에른(Bayren)	바이에른청소년연합(Bayerischer Jugendring)
베를린(Berlin)	사회교육연구재단(Stiftung SPI)
브란덴부르크 (Brandenburg)	
브레멘(Bremen)	브레멘청소년연합(Bremer Jugendring)
함부르크(Hamburg)	함부르크가톨릭청소년공동체교구협회 (KjG Diözesanverband Hamburg)
헤센(Hessen)	헤센청소년연합(Hessischer Jugendring)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Mecklenburg-Vorpommern)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청소년연합 (Landesjugendring Mecklenburg-Vorpommern)
니더작센(Niedersachsen)	니더작센청소년연합(Landesjugendring Niedersachsen e.V.)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Nordrhein-Westfalen)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청소년연합(Landesjugendring NRW)
라인란트-팔츠 (Rheinland-Pfalz)	라인란트팔츠-청소년동아리연합 (Kreisjugendring Germersheim e.V.)
자를란트(Saarland)	주즈 유나이티드(juz united)
작센(Sachsen)	작센청소년(Sächsische Landjugend e.V.)
작센-안할트 (Sachsen-Anhalt)	작센-안할트어린이·청소년연합 (Kinder- und Jugendring Sachsen-Anhalt e.V.)
슐레스비히-홀슈타인 (Schleswig-Holstein)	슐레스비히-홀슈타인청소년연합 (Landesjugendring Schleswig-Holstein e.V.)
튀링겐(Thüringen)	에어푸르트청소년인권의회(Jugendrechtshaus Erfurt e.V.)

U18 프로젝트는 1996년 베를린에서 연방하원선거와 연계되어 최초로 시작됐다. 이후, 2016년 3개 주 의원 선거 시기까지 13차례에 걸쳐 추진됐다.

〈표 III-2〉 U18 프로젝트의 연혁

년도	연계선거	실시지역	투표소/참가자
1996	연방하원선거	베를린	
1999	베를린지방의원선거	베를린	
2001	베를린주의원선거	베를린	5,000명
2002	연방하원선거	베를린 및 기타 지역	20,000명
2005	연방하원선거(조기선거)	최초로 전국적 실시	583개/50,000명
2006	베를린주의원선거	베를린	242개/13,800명
2009	연방하원선거	최초로 독일 모든 주에서 실시	1,000개/127,208명
2011	바덴뷔템베르크주의원선거	바덴뷔템베르크	29,358명
	베를린주의원선거	베를린	26,705명
2013	연방하원선거	각 주별 사무국 개설	1,525개/198,365명
2016	바덴뷔템베르크주의원선거	바덴뷔템베르크	12,972명
	작센안할트주의원선거	작센안할트	49개/4,333명
	베를린주의원선거	베를린	200개/26,916명

2. 활동

U18 투표는 공식적인 선거 9일 전에 실시된다. 연방하원선거와 유럽의회선거, 지방선거, 그리고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는 정치 이벤트에 적용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그들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된다. 독일의 모든 청소년은 거주지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고, U18 홈페이지에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으며, U18 투표를 어디서 할 수 있는지 검색할 수 있다. 그리고 U18 투표 결과는 곧바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U18 프로젝트의 기본취지는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로, ‘낮은 문턱, 최소한의 관료’를 기본 원리로 표방하고 있다. U18 투표는 다양한 연령집단, 서로 다른 구성과 창의적인 활동에 열려 있어야 한다. 초점은 스스로 조직하고 참여하는 기회를 통한 실제적인 정치 교육을 제공하는 데 있다. 그래서 U18 프로젝트는 의식적으로 많은 요소들을 포기하는 데, 여기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선거명부, 인물투표 등이 포함된다. 또한, U18 투표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강제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U18 프로젝트는 최소한의 준수사항만이 규정되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이런 규정이 확장될 가능성은 있다. 전국에서 준수되고 있는 U18 프로젝트의 활동지침은 다음과 같다.

1. U18은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고, 출신지, 국적, 생활여건, 교육적 배경, 성별, 두발의 색깔, 취미와 상관없이 동등한 참여자격이 있다.
2. U18 투표일은 공식적인 선거 9일 전으로 정하는데, 대체로 금요일이다. 선거장소와 투표소, 투표용지와 투표함 등이 마련된다.
3. U18 투표는 개인이나 단체(협회, 시설, 모임, 클럽 등)가 주관할 수 있다. 하지만 정당이나 정당 산하 청소년 조직, 극단주의 및 반민주주의 집단 등은 배제된다.
4. U18 투표소 관리담당자가 선임되고, 투표소의 주소와 이메일, 전화번호 등이 보고되어야 한다. 모든 투표소는 지도에 일괄적으로 표시되어 제공된다.
5. U18 투표는 늦어도 투표당일 오후 6시에 종료한다.
6. U18 투표 결과는 사무국이 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U18 투표는 유럽, 연방, 지방 등 다양한 선거에서 활용될 수 있다.
7. U18 투표 결과는 예외 없이 투표 당일 저녁에 공개된다. 설혹 투표가 일찍 종료됐더라도 투표 결과는 저녁에 함께 발표한다.
8. U18 투표 결과는 예외 없이 최소한 3개 이상의 투표소가 포함된 선거구별로 공개된다. 어떤 경우에도 개별 투표소의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다(유권자 보호를 위한 조치). 세 개 이하의 투표소를 포함하는 선거구의 결과는 전국적 결과에 포함된다(해당 선거구의 투표결과는 공개 되서는 안 된다).
9. U18 투표결과는 공식적 선거일 전에 성인들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하지만 차후에 U18 투표결과는 공식적 선거결과와 비교될 수 있다.
10. U18 투표는 초점을 정당투표에 둔다. 그 이유는 U18 프로젝트가 청소년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물론 정치교육의 강도와 초점에 따라, 참여주체는 인물투표를 추가할 수도 있다.
11. U18 프로젝트는 청소년 스스로 쉽게 추진할 수 있다.
12. U18의 로고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무국의 필요에 따라 수정·변형될 수 있다.
13. U18 투표 소프트웨어 접속은 자유로우며, 다양한 선거에 적용될 수 있다(다만, U18 투표 당일 저녁에는 결과발표 관련 조치로 제한될 수 있다).
14. U18 사무국은 U18 프로젝트의 명의로 관련된 투표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U18 프로젝트의 추진과정은 투표소 등록부터 시작한다. 등록은 참여 주체들이 U18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는 의사표명과 함께 이루어지며, U18 프로젝트 참여는 의무사항이라기보다는 참여 주체와 사무국 간의 계약에 가깝다. 투표소 등록은 U18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고, 대체로 U18 투표 몇 달 전에 이루어진다. 투표소 연락처와 개방시간은 지도상에 표시되어 모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후 본격적인 U18 프로젝트의 추진과정은 ‘투표준비와 정치교육’, ‘선택’, ‘후속 과정’ 등 크게 3가지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투표준비와 정치교육 단계는 공공의 이해 관심과 언론을 향한 선거 캠페인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진행된다. 이 시기에는 민주적 원리, 선거와 정당에 관한 기본지식이 제공돼야 한다. 참여자들의 이해 관심에 관한 중요사항과 이슈들이 제공되는 가운데 청소년들의 토론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정치적 견해의 형성이 이루어진다. 각 지역 사무국은 집단활동을 위한 방법론, 각 정당의 정책에 관한 정보 및 기타 추가적인 자료들을 제공한다. 때에 따라서는 토론경연대회나 정보 이벤트 개최, 활동을 위한 재정 마련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성 증진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청소년들이 후보자들에게 던지는 질문들을 모아 전달하기도 한다.

둘째, 선택의 단계는 U18 투표당일의 활동들을 포함한다. 투표용지는 참가자가 U18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 받거나 투표소를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인물투표를 가미할 경우 해당 선거구 후보자들이 포함된 투표용지를 별도로 준비할 수도 있다. U18 투표 당일에는 관심 있는 모든 청소년은 참여할 수 있고, 투표시간은 최대 오후 6시까지다. 투표소에는 오직 투표자만 들어갈 수 있다. 투표 종료 후 개표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가능한 청소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한다. 각 선거구의 투표결과를 온라인 시스템에 입력하면 전산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계산된 결과가 나온다. 상황에 따라서는 선거결과에 관심을 보이고 이를 기다리는 정당이 있거나, 관련된 선거 이벤트나 토론, 언론보도 등이 연계될 수 있다. 이를 참작하여 U18 투표 후 저녁에 U18 투표결과 생방송을 제작해 결과를 공유할 수도 있다.

셋째, 후속 단계로 U18 투표결과를 확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U18 투표결과는 공식적인 선거 이전에 확정되어야 한다. U18 투표결과의 공개는 공식적인 선거결과와의 비교 분석, 선거결과에 기반을 둔 공적 이해관심 등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의 정치교육 활동을 위해 제공한다. U18 프로젝트의 성격상 선거결과에 엄밀한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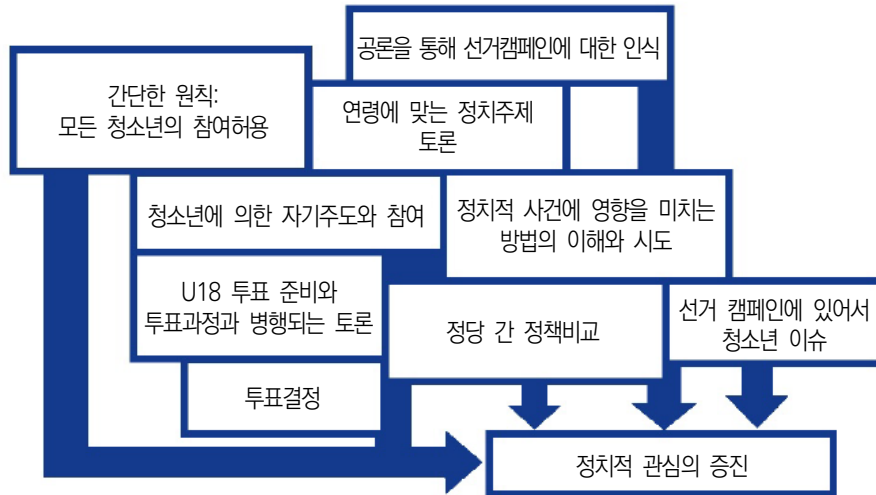
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청소년층의 정치적 성향과 관련한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 U18 투표결과는 가끔 성인들의 공식적 선거결과와 매우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U18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증진된 정치적 관심은 다른 차원의 정치 프로젝트나 정치 교육으로 연계될 수 있다.

3. 교육기제¹⁰⁾

U18은 단지 모의 선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과정에서 다양한 정치교육 활동이 곁들여진다. 정치교육 활동의 방법과 수준은 U18 선거가 이루어지는 지역과 U18 지역 사무국의 상황, 그리고 참여 청소년들의 동기부여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U18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원칙은 각 선거구의 '많은 자율성, 최소한의 의무'이다. U18 선거구들은 투표소와 투표행위, 투표용지를 포함한 투표부스 제공에 있어서 사무국의 제한을 받을 의무가 있다. 또한, 개표와 개표결과를 온라인 시스템에 입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청소년들이 U18 선거의 준비를 돕기 위해 참여하는 것은 선택사항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민주적 정치체제와 정당 간의 차이, 그리고 정치적 모순을 판독하는 프로그램 등을 학습하게 된다.

연방과 지역 수준의 U18 사무국들은 정당 정책, 교육방법 예시, 공적 주제들에 대한 정보 등 정치교육 프로젝트에 유용한 자료들을 제공한다. 투표를 위한 준비와 토론과정이 U18 프로젝트의 중심에 놓이는데, 사무국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당이나 정당의 청소년분과 등이 U18 프로젝트를 조직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궁극적으로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을 결정의 주체로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특히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사안이며, 그들을 유권자로 마주할 정치인들에게도 중요하다. 그래서 U18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을 정치와 정치인들 간의 거리를 좁히고자 한다.

10) 별도의 인용표기가 없는 내용은 다음을 참조했음. McKenna, Frank(2017). Methodensammlung



[그림 III-1] U18 프로젝트를 통한 정치교육적 효과

출처: U18. 2017. Konzept.

U18 프로젝트는 참여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치교육 자료를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출판물과 미디어 및 혼합 미디어 자료가 있다. U18 프로젝트가 제공하는 주요 출판물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표 III-3> U18 프로젝트 관련 정치교육 자료

하니스라우트(Hanisauland)	• 연방정치교육원에서 어린이들을 위해 개발한 정치 교육 사이트. 정치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 제공
프랑크푸르트의 학교를 위한 교재 Schulangebote der Frankfurter Allgemeinen(F.A.Z.)	• 교사들이 교과목별로 정치에 관해 가르칠 수 있는 보조교재들을 제공
쉬운 정치: 2017 연방하원선거 (einfach POLITIK: Bundestagswahl 2017)	• 연방정치교육원이 펴낸 2017 연방하원선거에 관한 안내책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얻을 수 있음
24 x 독일(24 x Deutschland)	• 연방정치교육원이 제공하는 24개의 인포그래픽. 여기에는 연방정치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이 소개되어 있음
도시예: 독일의 정당들 (Dossier: Parteien in Deutschland)	• 독일 정치체제의 발전의 역사를 특히 국제적인 비교, 독일 정당간의 차이와 정당 관련 법률 등을 소개하고 있음
살람 온라인 (Salam Online: Unterrichtsmaterialien zu Online-Hate-Speech und Islam)	• 윈스터 대학과 연방정치교육원이 펴낸 온라인상 혐오발언에 대응하는 방법, 혐오를 줄이기 위해 교사가 도울 수 있는 것 등에 관한 내용 제공

아울러 U18 프로젝트는 U18 투표를 계기로 정치교육을 하려는 교육주체들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와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선거 시기마다 정당들의 정책적 입장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콘텐츠인 ‘관점’(Ansichten)이 있다. 18가지 영역의 정책적 질문을 각 정당에 던지고, 각 정당이 내놓은 답변을 통해 정당들의 정책적 견해 차이를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한 콘텐츠다.



[그림 III-2] ‘관점’(Ansichten)의 18가지 정책영역과 정당들의 답변 예시

출처: U18(2017)

콘텐츠와 함께 청소년 그룹 활동, 그리고 교실의 정치교육 및 활동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엮어서 제공하고 있다(U18, 2017). 여기에는 ‘어린이를 위한 활동’과 ‘청소년을 위한 활동’, 그리고 ‘정치인과 함께 하는 활동’ 등 3가지 활동이 포함된다.

<표 III-4> U18 프로젝트가 제공하는 정치교육 및 활동 방법들

어린이를 위한 활동 (초심자)	매우 짧은 교훈적인 활동	의견의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자들이 놀이에 기반 한 접근을 통해 다른 견해들을 자신의 견해와 조화시키고, 논쟁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훈련
		논쟁의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적 의사표현과 자신의 일상적인 삶을 논리적으로 연결.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적인 주장 찾기

어린이를 위한 활동 (초심자)	짧은 활동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우리는 왜 투표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을 형성하고, 표현하고, 토론하고, 선택을 통한 의사 결정을 위한 민주주의와 선거의 원리 이해
		꿈의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아이디어, 바람, 비전, 주제를 인식하기. 유용한 아이디어로서의 참여
		정당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정당에 관한 지식 습득
		정치와 기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와 정당들에 관한 지식습득. 이를 통해 앞서 배운 내용을 반복하고 회고함
		어린이 집단 테이블: 끝내주게 한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정치적 욕망, 선호, 관용의 한계 등을 인식하기
청소년을 위한 활동 (참여자)	매우 짧은 교훈적인 활동	의견의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들이 놀이에 기반 한 접근을 통해 다른 견해들을 자신의 견해와 조화시키고, 논쟁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훈련
		논쟁의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 의사표현과 자신의 일상적인 삶을 논리적으로 연결.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적인 주장 찾기
	짧은 활동	자신의 정당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정당의 기원과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 사이의 절충점 찾기
		자신의 선거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 캠페인과 선택의 단계 이해
		교실/그룹에서의 캠페인 포트폴리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 다른 선거 프로그램을 접하고, 독립적인 평가를 내려 보기
		선거 캠페인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호효과(Signal effect)와 언어 연습
		인쇄 매체 다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 메시지의 조정과 효과에 대해 관심 갖기
발-오-마트 (Wahl-O-M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가까운 정당의 정책적 입장 찾기 		
정치퀴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린 질문을 통해 배운 것을 반복학습 하고, 지식의 격차 혹은 이해의 정도를 점검 		
정치인과의 활동		선거광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18에 관심을 지닌 대규모 집단을 위해(학교, 몇몇 학교, 청소년단체 등) 서로 다른 정당의 정치인을 초청해 개최하는 이벤트. 학생들은 청소년의 관심사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관해 토론함. 이런 과정을 통해 서로 다른 관점과 전망들을 얻을 수 있음. 이벤트는 청소년들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효과적임(필요할 경우 제3자의 지원 가능)
		정치인 인터뷰 (전통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인의 포부와 열린 질문에 대한 답변을 경청하는 정치 이벤트
		장광설을 늘어놓을까?: 정치인 질문공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식적인 분위기에서 선거구에서 출마하는 후보자들과 그들의 정치의제에 관해 알아보기
		폴리투어(Poli-tou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인과 산책하면서 지역 차원의 정치에 관해 배우고 토론하기
스피드 데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5명의 참여자가 정치인과 만나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고, 간결하고 직접적인 답변을 받는 방식의 간담회 		

IV

의사결정: '청소년 의회'

1. 개요¹¹⁾

독일에는 서로 다른 다양한 판본의 청소년 의회가 존재한다. 우선 명칭에 있어서 '청소년자문단'(Jugendrat, Jugendbeirat), '청소년포럼'(Jugendforum), '청소년지역위원회'(Jugendgemeinderat), '청소년지방의회'(Jugendkreistag), '청소년원탁회의'(Runder Tisch der Jugend)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청소년의회(Jugendparlamente)는 다양한 명칭을 아우르는 통칭으로 사용된다. 명칭뿐 아니라 활동방식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청소년의 정치참여에는 여러 수준이 있다. 의견개진(mitsprache)은 청소년에게 자신의 의견과 이해관계, 관심 및 희망사항을 피력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자문(mitwirkung)은 공공의 이슈나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의사결정권(mitbestimmung)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부여되는 것을 의미한다(Vilmar, 1984: 339-344).

청소년 의회는 청소년들이 단지 의견을 개진하거나 자문을 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넘어, 실제 공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영향을 미치는 참여를 실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청소년 의회는 단지 성인들의 의회를 모방한 젊은이용 의회가 아니다. 청소년 의회의 기원은 1970년대 벨기에와 프랑스의 실험에서 찾을 수 있다. 독일에서는 1985년 바덴 뷔르템베르크주 바인가르텐(Weingarten)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1987년 같은 주의 필더슈타트(Filderstadt)에서 최초로 보통선거를 통해 청소년 의원이 선출됐다.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청소년 의회가 독일 전역으로 퍼져 나갔고, 다양한 명칭과 형태가 나타났다(류현영, 2010).

천차만별의 형태를 지닌 독일 청소년 의회를 명료하게 규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다만 여러 지역과 다양한 형태를 관통해 공유되는 핵심적인 요소를 도출함으로써, 청소년 의회의 공통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Servicestelle Jugendbeteiligung, 2016).

11) 별도의 인용표기가 없는 내용은 다음을 참조했음. Servicestelle Jugendbeteiligung, 2002.

〈표 IV-1〉 청소년 의회 실천의 핵심적인 요소들

1. **피어투피어(peer-to-peer) 접근과 동기의 강화:** 사회적 공간의 독립적인 프로젝트를 통한 청소년들의 자기 효능감.
2. **역량강화(empowerment):** 청소년의 역량강화는 정치적 참여에 초점을 두고 있음. 이는 어떻게 청소년들을 역량강화 시키고, 민주적 삶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가의 문제.
3. **권한과 참여의 디자인:**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청소년들이 정치 및 행정과 대화하고, 청소년의 삶에 관한 긍정적인 관점을 창출하는 것.
4. **민감성 증진:** 청소년들의 이슈와 전망은 민감하게 다루어져야 함. 현장에서 청소년 참여구조를 지원해야함.

청소년 의회는 모의의회가 아닌, 제도적 공식성을 지닌다. 독일의 주들은 법률에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관련 문제의 심의 및 결정에 청소년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 의회의 구체적인 운영은 주 산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담당하며, 관련 사항은 조례에 의해 규정된다. 청소년 의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대체로 해당 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14세에서 18세의 청소년에게 주어진다. 하지만 어린이 의회를 구성하는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9세로 설정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 21세까지 참여의 권한을 부여하기도 한다. 임기는 보통 2년이며, 의원의 정수는 10~40명쯤이며, 대도시의 경우 인구 규모에 비례해 60명이 넘기도 한다. 선거 방식은 크게 2가지로 나뉘인다. 지역의 선거권자 전체가 투표하는 방식과 학교를 통해 투표하는 방식이다. 당선자 결정은 다수득표자 개인이 당선되는 방식이며, 정당 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면 해당 지방의회 선거방식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지역에 따라 ‘어린이 및 청소년의회’를 구성하는 경우 연령대를 구분해 선출하기도 한다(류현영, 2010).

실례를 살펴보기 위해 독일 청소년 의회의 발상 지역인 바덴-뷔템베르크주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²⁾ 2016년 현재 84개의 청소년지역위원회(Jugendgemeinderat)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 전역의 절반가량에 가까운 규모다.¹³⁾ 14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참여하는데, 최근 들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참여연령의 범위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해당 청소년들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지니고, 독일 시민권을 지닌 청소년이라면 참여에 차별을 받지 않는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청소년 의회 관련 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12) 별도의 인용표기가 없는 내용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청소년 의회 관련 홈페이지(<http://www.landeskunde-baden-wuerttemberg.de/2669.html>)를 참조했음.

13) https://www.lpb-bw.de/fileadmin/.../jgr-statistik_okt_2016.pdf

〈표 IV-2〉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지방자치 개정 법률의 청소년 의회 관련 규정¹⁴⁾

<p>§ 41a 어린이와 청소년의 참여(Beteiligung von Kindern und Jugendlichen)</p> <p>(1)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신들의 이해관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계획과 정책에 적절한 방식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참여절차를 개발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의회 혹은 다른 형식의 청소년 대의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 의회 및 대의제도는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구성된다.</p> <p>(2) 청소년은 청소년 대의체의 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 청소년 대의체의 정수는 인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자 20,000명 → 20명 - 거주자 50, 000명 → 50명 - 거주자 200,000명 → 150명 - 거주자 200,000명 이상 → 250명 <p>지방의회는 청소년 대의체 구성요청을 접수한 후 3개월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방의회는 청소년 대표자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p> <p>(3) 청소년 대의체 구성원들은 의회에서 회합을 통해 청소년 관련 사항을 다룬다. 특히 발언권, 청문권, 청구권이 부여된다.</p> <p>(4) 청소년 대의체의 운영과 활동을 위한 적절한 예산이 책정되어야 한다. 지방의회는 전체 예산의 구조를 고려해 청소년 대의체 관련 예산의 범위를 정한다. 관련 예산의 사용은 간단한 형식의 증빙이 수반된다.</p>
--

출처: https://www.landtag-bw.de/files/live/sites/LTBW/files/dokumente/WP15/Drucksachen/7000/15_7573_D.pdf

청소년 의회의 기본적인 책임은 청소년 관련 공적 사안에 관해 결정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선거에 관한 이벤트나 토론, 지방의회 참여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청소년 레저시설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청소년 의회는 독서회, 여름휴가 프로그램, 파티나 스포츠 행사와 같은 이벤트를 추진하기도 한다. 때로는 시민의식 캠페인이나 에이즈, 약물중독, 청소년 폭력과 같은 예방 프로그램 등이 청소년 의회에 의해 추진되기도 한다. 청소년 의회의 활동은 두 가지의 다른 수준으로 분류될 수 있다. 먼저 청소년 의회는 1년에 6~10차례에 걸쳐 공식적인 회합을 가지고, 이를 통해 의결과 선출 등이 이루어진다. 비공식적 회합도 가질 수 있는데 이는 정기적일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소집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공식, 비공식 회합을 통해 구체적인 이슈나 아이디

14)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청소년 정치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2015년 동법의 해당 조항을 개정한 바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청소년 의회 구성을 의무화 한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 의원들의 발언권, 청문권, 청구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어에 관한 토론과 의견수렴 등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청소년들은 개별적인 프로젝트를 기획·실행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 관련 사안을 다루는 비교적 긴 임기의 특별위원회, 혹은 친선축구대회를 준비하는 짧은 임기의 특별위원회가 있을 수 있다. 청소년 의회는 해당 사안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특별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청소년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장을 선출한다. 의장은 청소년 의회를 대표하고, 그 활동을 조정하며,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섭창구 역할을 맡는다. 청소년 의회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은 일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청소년 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행정적 지원 방식과 참여 청소년들에 대한 정치교육의 지원방식으로 나뉘 볼 수 있다. 여기에는 공문발송, 의안상정, 프로젝트 추진 및 예산심의 지원 등이 포함된다. 그런데 청소년 의회 운영예산과 관련해 지방의회를 통해 설정되는 공공예산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공공예산 외에 학교나 민간단체, 개인이나 기업, 연구소 등과의 제휴나 후원이 활성화되어 있다.

2. 활동

천차만별의 형태와 활동내용을 지닌 전국의 청소년 의회 활동을 개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여기서는 청소년 의회를 포함해 청소년 참여활동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인 청소년참여지원센터(Servicestelle Jugendbeteiligung)가 소개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부퍼탈 지역청소년자문단과 베를린-라이니켄도르프(Berlin-Reinickendorf) 청소년자문단(Jugendrat)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Servicestelle Jugendbeteiligung, 2002).

가. 부퍼탈 지역청소년자문단

부퍼탈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중심부에 위치한 인구 380,000명 규모의 도시로 10개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다. 1997년 기독교민주당(CDU)이 집권한 비엔나(Vienna)시에서 지역청소년자문단이 주창되고, 10개 기초자치단체로 확산되었다. 1998년에는 지역청소년자문단 선거가 개최되었다. 당시 18,000명의 청소년(13세~18세)들이 출신 및 국적과 상관없이 투표에 참여했다.

부퍼탈 지역청소년자문단은 투표를 통해 100명의 청소년을 선출하고, 2년을 임기로 지역의 청소년 관련 사안을 다루게 된다. 자문단의 회합과 활동은 독립성이 보장되고, 한 달에 한 두 차례의 회합을 갖는다. 청소년자문위원들은 회합을 통해 아이디어를 내고, 계획을 수립하고, 토론하고 합의할 수 있는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는다. 이와 같이 지역청소년자문단에서 수립된 제안은 지방의회와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출된다. 그런데 청소년자문위원은 발언권과 청구권 등을 부여받지만, 의결을 위한 투표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동시에 지역 간 협력을 위해 각 지역에서 파견된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두고, 지역을 넘어선 프로젝트를 다루도록 한다.

한편, 지역청소년자문단은 기성 정치인들이 자문단의 의견을 잘 수용하지 않는다거나, 지역 청소년들이 자문단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부퍼탈 청소년자문단의 역할은 계속 조정 중에 있으며, 이 자문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스포츠 시설이나 레저 활동, 이벤트, 경연대회에 참가할 수도 있고, 전문적인 지원에 기반 한 훈련도 받을 수 있다.

나. 베를린-라이니켄도르프 청소년자문단

라이니켄도르프는 베를린 북서부에 위치한 인구 250,000명 규모의 도시로, 약 15,000명의 청소년(13~20세)이 거주하고 있다. 라이니켄도르프는 규모가 큰 도시로서 베를린의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베를린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정치적 권리를 누리고 있다. 그런데 라이니켄도르프는 전국 평균 보다 많은 고령 인구가 살고 있고, 베를린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지역이다.

1997년 라이니켄도르프청소년개발(Jugendfarderung)이라는 단체는 청소년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청소년회담을 조직하여 청소년의 전폭적인 반응을 얻었지만, 기성 정치권으로 부터는 큰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회담을 조직한 단체와 청소년 그룹은 지속 가능한 청소년 정치참여 틀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참여'(Jugendbeteiligung Reinickendorf) 그룹을 출범시켰다. 1998년까지는 청소년자문단(Jugendrat Reinickendorf) 형식의 모델을 설계하였고, 1999년에는 청소년자문단이 정치적으로 의무화 됐다. 이후, 2000년에는 청소년의회(Jugendparlament) 활동으로 발전하는 등 조직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

현재 라이니켄도르프 청소년자문단 내에 있는 프로젝트 관련 워킹그룹들은 청소년 의회와 합류해 활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리고 청소년자문단의 운영과 활동은 지방정부의 청소년 관련 부서의 지원을 받는다. 청소년의회는 13세에서 20세 사이 청소년 21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17명은 청소년들의 투표를 통해 직접 선출되고, 4명은 지역사회 청소년 기관·단체의 추천으로 선출된다. 그리고 직접선출 투표는 학교를 통해 이루어진다. 청소년의원 후보자들은 자신의 유권자들이 다니는 학교를 순회하고, ‘학교의 날’ 행사를 통해 많은 학생 앞에서 자신들의 정견을 발표하기도 한다. 이후 선거를 위해 설치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10,000명가량의 청소년 유권자가 투표를 하게 된다.

청소년 의회는 한 달에 한 번 회합을 갖고, 토론하고, 각자의 활동결과를 공유하며, 논의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전달한다. 회합은 주로 시민회관에서 열리고,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열리기도 한다. 회합의 소집권은 청소년 관련 부서나 청소년의회의 위원회에 부여된다. 청소년 의회의 회합은 지역 내 청소년 누구나 방청할 수 있고, 대화와 요구도 가능하다. 회합을 마친 후, 의원들은 지방의회와 청소년 관련 부서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성인자문위원회와 회합을 가지고, 청소년자문단의 요구를 실현할 방안을 협의한다. 청소년자문단 내 워킹그룹들은 독자적으로 수시 회합을 갖는데, 그 운영은 공식적이지 않다. 성인자문위원회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방식은 청소년활성화위원회(Jugendhilfeausschuss)가 주관하는 컨설팅을 위한 회합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라이니켄도르프 청소년의회를 설치한 이후, 청소년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토론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하지만 구성원이 정당 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들이어서 정당정치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향도 있다. 이런 현상은 청소년자문단이 기성 정당을 만나지 않아도 무방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지방정부의 정책운영 방침에서 비롯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관련 부서의 정치적·재정적 압박이 청소년자문단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왔다. 이에 따라 최근 청소년자문단을 최소한으로 운영하려는 경향과 선거에 드는 비용을 극단적으로 줄이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청소년자문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언론들도 청소년자문단의 의미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라이니켄도르프 청소년자문단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앞서 언급한 정책입안자들과의 다름이고, 그 다음 문제는 청소년자문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이다. 한편, 청소년자문단 활동이 거둔 성과는 청소년의회를 의무화한 것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이들의 노력을 통해 광범위한 청소년 정치참여 지역을 구축했다는 것이다.

3. 교육기제¹⁵⁾

청소년 의회는 그 자체로 공공정책 과정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기제이면서, 동시에 역동적인 청소년 정치교육의 기제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청소년 의회 활동과 정치교육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일선 학교 현장은 청소년지역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청소년위원 선출 및 관련 교육,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여기에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청소년 의회의 우산조직인 청소년지역위원회협회와 정치교육원도 정치 교육적 측면을 지원한다. 그런데 청소년지역위원회협회는 청소년들을 위한 세미나 및 훈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교육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주정치교육원의 청소년 정치교육 관련 부서인 '청소년과 정치'(Jugend und Politik)다. 이 부서는 청소년들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청소년지역위원회에 대한 지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청소년 정책과 이슈에 관한 정보, 다양한 청소년 참여기회, 그리고 다양한 정치교육 방법론과 기술,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과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청소년지역위원회 활동에 도움을 주려는 상세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지침은 청소년지역위원회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내용을 몇 가지 항목으로 구분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5) Servicestelle Jugendbeteiligung(2016). 별도의 인용표기가 없는 내용은 다음을 참조했음.

〈표 IV-3〉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청소년지역위원회 활동 지침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1	개념	청소년지역위원회란 무엇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념 • 법적인 기반 • 다양한 참여 형태 • 청소년지역위원회의 기능
2	역사	청소년지역위원회의 형성과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의제적 의회 형태로 나타나는 청소년 참여활동 • 독일과 유럽의 청소년의회 활동의 발달
3	기관	관련 기관들: 역할, 책임,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과 지원 •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 청소년의회 우산조직: 청소년지역자문단협회 (Jugendgemeinderäte Baden-Württemberg e.V.) •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정치교육원
4	의회 구성	청소년지역위원회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구성과 위원선출 • 청소년지역위원회 안내 • 청소년지역위원회의 권한
5	의회 활동	청소년지역위원회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지역위원회의 역할 • 회합, 직무, 프로젝트 기획 • 프로젝트 사례
6	프로젝트	프로젝트 관리와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기획, 실행, 평가 • 언론보도와 홍보 • 인터넷을 통한 발표
7	훈련	청소년지역위원회를 위한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정치교육원이 제공하는 심화 훈련

아울러 위와 같은 지침과 함께 청소년 위원을 위한 유용한 교육·훈련 자료 꾸러미들을 제공하고 있다. 개념, 기관, 의회의 구성 및 활동, 프로젝트 및 훈련에 관한 항목에 대한 자료 꾸러미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표 IV-4〉 청소년지역위원회 활동 지침에 첨부되는 자료 꾸러미

구분	주요 내용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정치참여의 법적 기반: 법령 관련 문서들 •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청소년지역위원회 현황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의무의 법적 기반 • 지방정부 및 의회 관련 정보(그래픽 자료)
의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출과 활동과정에 관한 규정 사례 • 온라인 선거 관련 사항
의회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지역위원의 역할 수행을 위한 선출 및 위원업무 규정 • 회의추진을 위한 규칙 • 사례의 적용 • 팀빌딩과 동기부여를 위한 게임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적 방법 브레인스토밍 • 체크리스트: 프로젝트 기획 • 사례 언론 보도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정치교육원의 세미나 사례

이 중에서 몇 가지 자료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의회활동 영역의 ‘팀빌딩과 동기부여를 위한 게임’은 ‘팀시계’(TeamUhr)라는 모델을 제시한다. 이는 하나의 팀이 형성되고 해소되는 과정을 첫째, 오리엔테이션단계(형성) 둘째, 대치(Konfrontations)단계(혼란) 셋째, 협력단계(규범) 넷째, 성장단계(실행) 다섯째, 해소단계(休止) 등 5가지 단계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표 IV-5〉 ‘팀시계’ 모델의 5가지 단계

구분	주요 내용
1 오리엔테이션 (형성, forming)	팀이 창조되는 단계로, 구성원들은 자신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 구성원들이 서로 예의를 차리고, 서로 알아가는 시기다. 이 단계에서는 누군가 팀을 이끌어 줄 필요가 있다.
2 대치단계 (혼란, storming)	두 번째 단계는 특히 중요하다. 갈등으로 인해 팀을 유지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결정해야 할 경우도 있다. 갈등은 나타나게 되어 있으나, 의견과 표현이 열려있어야 한다. 이 단계의 마지막 부분에 기본적인 공감대가 형성된다. 팀을 이끌어 주는 이는 한발 물러서되, 팀이 계속해서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3 협력단계 (규범, norming)	이 단계에서는 아이디어들이 공유되고,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친밀해진다. 팀은 함께 성장하고, 리더는 팀의 임무를 조정한다.

구분		주요 내용
4	성장단계 (performing)	실제 일이 되어가는 단계로, 팀은 임무를 수행해 간다. 집단역동이 일어나면 실행력은 최고조에 달한다. 리더의 개입은 최소화 된다.
5	해소단계 (adjourning)	이 단계는 팀이 역할을 완수한 시기다. 구성원들이 해산하고 구성원들의 활동도 종료된다. 팀은 다시 새로운 '팀시계'로 돌입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영역의 '체크리스트: 프로젝트 기획'은 청소년위원들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 기획을 첫째, 목표설정, 둘째, 관리, 셋째, 평가, 넷째, 피드백 등 4가지 단계로 구분하고, 청소년위원들이 각 단계별로 스스로에게 던질, 혹은 구성원들과 함께 논의해 봐야 할 핵심적인 질문들을 제시하고 있다.

〈표 IV-6〉 프로젝트 기획 단계별 핵심적인 질문들

구분		주요 내용
1	목표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젝트 기획 초기에 아래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목적의 정의: 이 프로젝트를 왜 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 목표집단 정의: 누가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나? 프로젝트가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프로젝트 내용: 프로젝트를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프로젝트의 결과는 무엇인가? 임무의 정의와 분장: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각자의 임무는 무엇인가? 누가 그 임무를 맡을 것인가? 수단: 프로젝트의 재정은 어떻게 마련하는가? 누가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는가? 어떤 활동이 필요한가? 장소와 시간: 프로젝트 추진의 적합한 장소와 시간은?
2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젝트 관리는 자원관리라고도 할 수 있다. 자원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위원은 아래와 같은 질문을 지속적으로 던질 필요가 있다. 우리는 납세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가 자원을 대하는 방식은 합리적인가? 누가 이 프로젝트에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나? 누가 이 프로젝트로 인해 이득을 보는가? 한 번의 프로젝트를 위한 노력과 재정이 가치가 있는가? 다음 청소년지역위원회는? 어떤 가치가 더해 졌는가? 어떻게 프로젝트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가?

구분	주요 내용
3	<p>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가 무엇을 가져왔는가? 변화? 성과? 새로움? • 우리는 목표가 있었는가? • 우리는 다음번에 무엇을 다르게 해야 하는가? •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 구성원들은 각자의 역할에 만족했는가? • 무엇이 인상적이었나? 어떤 문제가 있었나? • 마음에 걸리는 것은 무엇인가? • 우리가 아직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 프로젝트가 우리의 기대에 부응했는가?
4	<p>피드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좋지 않았는가? • 나는 스스로 어떻게 만족하는가? 나는 팀과 함께 어떻게 만족하는가? • 청소년지역위원회의 현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은 어떤가?

V

우리에게 주는 함의

1. 한국의 경우

독일의 정치교육이 있다면 한국에는 민주시민교육이 있다.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용어는 1980년대 독일의 정치교육 모델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의 과정에서, 당시 시대적 분위기를 고려해 붙인 명칭으로 현재에도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형식은 현대사의 역사적·사회적 조건 속에 형성되었다. 첫째, 초창기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면서 민주시민교육은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의도 속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시민교육을 주도적으로 실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미국의 점령지 정책이 철저한 반공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으므로 불완전한 민주시민교육이 될 수밖에 없었다. 둘째, 최근의 시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민주시민교육은 정권적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이념과 방향을 결정하였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시민교육을 정권유지에 이용하기도 하였다. 셋째,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이 정치, 사회적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일상생활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형식적 교육이 되고 말았다. 헌정질서의 파괴, 정치부패, 사회 부조리 등 비민주적 정치, 사회 환경들로 인하여 학교에서 형성된 민주시민의식은 사회에서 작동하고 실천할 수 없게 되었다(고선규, 2014: 53). 이에 따라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를 유형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V-1〉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

구분	주요 내용
불일치 (inconsisten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론과 실천, 인지적 측면(지식·기능)과 정의적 측면(가치·태도) 사이의 불일치 혹은 괴리 내면화와 실천적 생활화의 부족
도구화 (instrumentaliz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시민교육의 정치적 종속성 민주시민교육의 '교육논리'에 대한 '정치논리'의 지배 교육이 정치의 도구로 이용될 위험성
무관심 (indiffer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위(주의)적인 정치문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정치지도자의 무관심
제도적 미비 (institutional defic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가정·학교·사회 수준에서 행해지는 민주시민교육의 유기적인 연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조건의 불충분
인식의 결여 (incogniz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합적 위험사회의 특징을 극복하고, 세계화·정보화·다원화·사회로의 변동과정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인식과 의식의 부족

출처: 허영식(2004). 수정 인용.

이런 문제점은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을 정치와 괴리된 것으로 만들었다. 한국의 민주 시민교육에 있어서 정치는 예비 정치학자를 양성하는 것과 같이 정치학이나 선거제도 등에 관한 지식의 전달에 머물고 있다(김명정, 2013: 105). 하지만 민주시민교육이 지향하는 것은 정치에 유식한 시민이 아니라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이다. 그런데 참여의 능력은 ‘아는 것’을 넘어 ‘해보는 것’을 통해 길러진다. 이렇게 볼 때 정치참여는 정치 교육의 목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좋은 수단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이 지닌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정치참여와 관련된—혹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일련의 노력이 이어져 왔다. 1990년 청소년 현장 제정과 1993년 청소년기본법 제정을 통해 청소년 참여에 관한 정책적 노력의 계기가 마련됐다. 이후 1998년 청소년 현장 개정을 통해 사회봉사에 국한된 참여를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로 재규정했다. 아울러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에는 ‘청소년 권리보장과 자율적인 참여기회 확대’가 5대 중점과제로 포함됐다. 청소년 정치참여에 관한 정책이 본격화된 것은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을 통해서다. 이후 청소년 정치참여와 관련된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표 V-2〉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의 청소년 정치참여 관련 정책

기본계획 시기	정책과제	세부과제
제3차 기본계획 (2003~2007)	청소년 권리신장 및 자발적 참여기반 구축	[청소년 정책참여 기회 확대] - 대통령 주재 ‘청소년특별회의’ 개최 -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위원회’ 설치 -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수립 시 청소년 참여(공청회, 설문 조사 등)
제4차 기본계획 (2008~2012)	청소년 활동기반 보강	[글로벌사회 청소년 자율참여진로 개발 지원] -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확대 - 청소년특별회의 운영개선 강화 - 청소년 정책참여 대국민 인식제고 - 지역사회 정책참여(구정운영지원단, 지방의회 모니터링)
제5차 기본계획 (2013~2017)	청소년들의 참여·권리 및 자율적 역량 강화	- 청소년특별회의 위상 및 기능 강화 - 청소년운영위원회 확대 - 대한민국아동총회 정책반영 제고

출처: 청소년육성위원회(2002).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7). 제4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1).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에서 제도화된 청소년 정치참여는 정책과정 참여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공론장인 청소년특별회나 아동총회이며, 청소년 시설의 운영에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다. 독일의 경우 청소년 정치참여의 수준을 ‘의견개진’, ‘자문’, ‘의결’ 등 3단계로 구분하는데, 이에 비춰 보면 청소년특별회의는 의견개진,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자문의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나마 전자의 경우 연례행사의 성격을 띠고, 후자는 청소년시설 운영으로 참여 범위가 제한되며, 참여하는 청소년의 규모도 제한적이다. 그 밖에도 국회나 서울시 의회의 어린이 의회 프로그램 등이 있지만 체험 및 견학 수준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시민사회의 영역에서도 청소년 정치참여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여기에는 각 정당의 청소년위원회 활동,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¹⁶⁾ 청소년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선거 시기 모의투표, 청소년 정책제안, 18세 선거연령 인하운동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의사결정 수준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로서 청소년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도하여 2003

16)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http://youth.kdemo.or.kr>) 참조.

년에 출범한 대한민국청소년의회가 있다. 이는 독일을 포함한 유럽 지역 청소년 의회 모델을 참조했지만 제도화 된 형태는 아니다. 지역별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출된 청소년 대표들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관해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국의 경우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청소년 정치참여에 관하여 정부와 시민사회 영역에서 의미 있는 시도들이 이루어졌지만, 이후 뚜렷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한 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변화를 위한 단초

앞서 살펴본 독일의 상황과 그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청소년 정치참여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진 나라에서도 '정치적 거리감'이나 '정치 싫증' 문제가 여전히 고민거리임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청소년 정치참여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일까. 결과론적 관점을 벗어나 보면, 청소년 정치참여의 문제는 특정 시점에 해결되는 성격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만이 최선임을 시사해 준다. 정치참여는 그와 같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정치교육의 목표 그 자체이면서도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증진된다는 점을 발견했다. 독일의 U18과 청소년 의회는 그런 부단한 노력의 과정에서 발현되고 발전된 대표적인 청소년 정치참여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독일의 정치참여 기반 정치교육의 사례가 얼마나 훌륭하며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보다, 독일의 정치교육 자체가 무엇을 지향하고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그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U18과 청소년 의회 사례가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에 던져주는 함의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이 정치를 다룬다는 것에 대한 전향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독일에서 깊은 수준의 청소년 정치참여라는 실험이 가능한 이유는 그보다 얕은 수준의 정치교육이나 참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즉, 교육이 정치를 적극적으로 다뤄야 하며, 이는 독일의 역사적 굴레를 넘어서고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합의가 이뤄져 있다. 그러나 한국의 학교교육 및 청소년 활동은 소위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담론이 강하게 작동한다. 이와 같은 정치적 중립에는 '교육현장에서는 민

감한 정치적 사안을 다루지 말라’는 암묵적 강압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나 정치적 사안이 다뤄지지 않으면 학생은 ‘지나간’ 정치나 ‘제도’로서의 정치만 다룰 수 있다. 정치적 사안은 교육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다뤄짐으로써 청소년들이 시민으로서 필요한 인식과 판단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은 교수자가 학생들에게 정치적 사안에 대한 찬반양론을 균형 있게 제공하되 판단을 내리지 않고, 학생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교육에서 정치를 다루는 것이 교육현장을 정치화한다는 논리는 청소년을 정치에서 절연시키는 탈정치화의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 정치에 대한 개념의 확장이 필요하다. 정치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협의의 제도 정치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선거나 정당 활동 등 전통적인 정치참여에 대한 관심이 줄어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관점, 새로운 방식의 정치 참여가 증가하고 있어 민주주의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는 관점 등 두 가지 측면이 양립하고 있다(조혜영·최창욱, 2008: 113). 후자의 관점에 따르면 민주주의나 정치의 개념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 정치의 사전적 의미에는 ‘국가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과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일’이라는 두 측면의 의미를 갖고 있다. 후자를 전자의 하위개념으로 보는 관점도 있지만, 본원적으로는 후자가 전자의 근본이며 전자는 후자의 특화된 형태이기도 하다. 현실에서 이 둘은 결코 분리돼 있지 않지만, 또한 현실적으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 앞서 독일의 논의에서 ‘사회’에 대한 강조로 인해 ‘정치’가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는 우려를 살펴봤다. 중요한 비판이지만, 그런 현상이 일어난 원인을 생각해보면, 사회에만 관심을 두어서 정치가 소홀히 다뤄진 것이 아니라, 정치가 사회, 즉,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과 관계의 문제를 세심하게 다루지 못하고 괴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가 좀 더 많은 사회적 측면을 포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정치가 사람들을 위한 것, 사람들에게 유용한 것일 때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샤츠슈나이더, 2008).

셋째, 정치참여는 민주시민교육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가장 좋은 수단이라는 공감대가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그 자체의 과정과 필요에 의해 경험될 수 있는 것이며, 특히, 교육의 과정에서 더욱 그러하다.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사를 추구할 수 있도록 지속적

인 도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는 참여의 형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Schmidt, 2002). 보통 청소년의 정치참여나 그들을 위한 적극적인 민주시민교육이 거부되는 이유로 흔히 제시되는 논리가 청소년의 정치적 미성숙성이다. 청소년이 과연 성인보다 미성숙한가—혹은 성인이 청소년 보다 성숙한가—라는 논의는 차치하고라도, 정치에 대한 미성숙함으로 극복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그 정치를 해 보는 것이다. 미성숙함이 정치 불참의 이유라기보다는, 정치 불참이 미성숙함의 원인이 된다. 그렇다고 청소년의 정치적 무관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러한 노력들이 낡은 형식 속에 쏟아 부어졌기 때문이다 ... 참여와 참여의지가 존재할 수 있는 곳에서 찾아야 한다’(벨처, 2015). 즉, 청소년 정치참여는 단지 성인 정치참여의 축소판이어서는 안 되며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또 다른 판본이어야 한다. 독일의 참여 수준에 관한 논의는 가장 좋은 정치참여가 참여자에게 효능감을 주는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단지 성인들의 정치과정에 의견을 개진하거나, 정치과정 참여에 자문하는 것을 넘어, 자신들의 대표를 직접 선출하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험은 가장 효과적인 정치교육의 수단이 된다.

넷째, 새로운 조치를 추가하기 이전에 기존 시도들의 정치화 수준을 높이는 접근이 필요하다. 독일의 U18과 청소년 의회 사례는 적극적인 정치참여의 잠재적 가능성에 대해 많은 통찰을 제공해 준다. 하지만 선진사례의 도입은 늘 ‘한국적 현실에서는 아직 이르다’라는 시기상조론에 부딪힌다. 실제 선진사례의 무비판적 도입은 많은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려하기보다 기존의 시도들을 좀 더 정치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독일의 U18이나 청소년 의회 역시 그에 앞서 축적된 청소년 참여와 정치교육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다. 우선은 정치참여보다 활성화된 다양한 사회참여를 ‘정치적인 것’과 연결하기 위한 노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사회 속의 현장실습으로부터 정치학습에 대한 많은 기회가 나타날 수 있다’(비드마이오, 2009: 19). 이를테면 청소년 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나 의회의 정책과정과 연결하는 것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나 선거 시기 이벤트로 이루어지는 청소년 모의투표 등의 정치참여 활동 역시 체험과 홍보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실제 그 과정과 결과가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실제 정치과정과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이나 독일과 같은 청소년 의회 관련 조례 등 제도적인 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청소년 정치참여를 위한 다양한 실천내용이 교육현장과 연결되는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청소년 정책과 교육정책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 참여가 교육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더욱 청소년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다(조혜영·최창욱, 2008: 136). 청소년·아동 회의나 청소년운영위원회와 같은 제도들이 학교 및 교육현장과 괴리된 채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청소년 정치참여를 위해 노력하는 시민사회단체와 교육현장간의 연결도 중요하다. 독일의 사례에서도 보듯 정치참여와 교육에 관한 새로운 시도들이 시민사회의 주체들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청소년 정치참여 및 교육과 관련해 공공기관인 연방·주정치교육원과 학교, 그리고 청소년 관련 시민사회단체 간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도 크게 부각되고 있지는 않지만, 대한민국 청소년의회와 같이 청소년 정치참여와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주체들이 적지 않다. 우선 이들의 활동이 확산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정책과 청소년 참여에 열의를 가진 일선 교사들이 상호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 고선규(2014). 고등학교 정치·선거학습의 문제점과 민주시민교육. **사회과수업연구**, 2(2), 47-68
- 김명정 외(2013). **초·중등 교과서 선거·정치교육 내용 수록 실태 조사·분석**.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류현영(2010). 독일의 청소년 의회(<http://www.politics.kr/?p=120>).
- 모테스(2015). 통일 독일의 정치교육: 신연방주를 중심으로. **2015년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20-33.
- 박병석(2000). **독일 연방정치교육원(II)**. 선거연수원.
- 비드마이오, 베네딕트(2009). **독일의 정치적 무관심과 정치참여**. 2009년 선거연수원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 박수형, 현재호(2008), 슈나이더, 샤츠 E(저)(2008). **절반의 인민주권**. 서울: 후마니타스
- 신두철(2011). 독일 정치교육의 새로운 도전 과제로서 정치협오와 정치참여. **한독사회과학논총**, 21(4), 27-48.
- 신두철(2005). 독일의 정치사회화와 정치교육. **한독사회과학논총**, 15(1), 41-57.
- 오일환(1995). 통일을 전후한 독일의 정치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29(2), 523-548.
- 원성철(역), 벨쳐, 하랄트(저)(2015). **저항 안내서: 스스로 생각하라**. 서울: 오롯.
- 음선필(2013). **민주시민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 이선향(역), 바버, 벤자민(저)(2006). **강한 시민사회 강한 민주주의**. 서울: 일신사.
- 전득주(2000). 독일의 정치문화와 정치교육: 그 역사적 발전 과정을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학회보**, 5(0), 1-29.
- 전미혜(역), GPJE(저)(2008). **국가교육기준 요구안: 독일 시민교육 지침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정창화(2004).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한국민주시민교육론**. 서울: 엠애드.
- 조혜영, 최창욱(2008). 청소년 참여활동의 성과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탐색: 청소년 참여기구 청소년들과의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5(1), 111-140.

- 허영식(2012). 그리하여 성숙한 시민으로 거듭나다: 독일과 미국의 초중등 정치교육과 청소년 참정활동. **학교도서관저널 12월호**.
- 허영식(2004).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방안에 대한 일고. **선거연수원 심포지엄 자료집**:한국정치교육의 현황과 미래.
- Abs, Hermann Josef; Roczen, Nina; Klieme, Eckhard(2007). Abschlussbericht zur Evaluation des BLK-Programms ‘Demokratie lernen und leben’.
http://blk-demokratie.de/fileadmin/public/download/materialien/weitere/DIPF_BLK_Abschlussbericht_2007.pdf
- McKenna, Frank(2017). Methodensammlung. http://www.u18.org/fileadmin/user_upload/U18_Bund_2017/Download/U18-Methodensammlung.pdf.
- BMFSFJ(1999). *Frauen und Jugend: Beteiligung von Kindern und Jugendlichen in der Kommune. Ergebnisse einer bundesweiten Erhebung*. M.nchen: Deutsches Jugendinstitut 1999, S. 29).
- Himmelmann, Gerhard(2004). *Demokratie-Lernen: Was? Warum? Wozu?*. Berlin: BLK 2004, 22 S.(Beiträge zur Demokratiepädagogik).
- Servicestelle Jugendbeteiligung(2002). Jugendparlamente (oder ähnliches) in Deutschland. <https://www.servicestelle-jugendbeteiligung.de/jugendparlamente>.
- Vilmar, Fritz(1984). *Participation In Wolfgang W: Mickel (Eds.). Handlexikon To political Science*. M nchen: Ehrenwirth. 339-344.
- Servicestelle Jugendbeteiligung(2016). Leitfaden: Jugendbeteiligung in Kommunen. https://www.servicestelle-jugendbeteiligung.de/wp-content/uploads/2017/01/Leitfaden_Jugendbeteiligung_Kommunen.pdf.
- Reinhardt, Sibylle; Tillmann, Frank(2002). Politische Orientierungen Jugendlicher. <http://www.bpb.de/apuz/25921/politische-orientierungen-jugendlicher>.
- Schmidt, Ralf(2002). Partizipation in Schule und Unterricht. <http://www.bpb.de/apuz/25929/partizipation-in-schule-und-unterricht>.
- U18(2017). Ansichten. http://www.u18.org/fileadmin/user_upload/U18_Bund_2017/Download/U18-Bundestagswahl_Synopse_2017_mit_Deckblatt.pdf
- U18(2017). Konzept. http://www.u18.org/fileadmin/user_upload/U18_Bund_2017/U18-Konzept_nei.pdf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안내

1. 발행취지

-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은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정보 공유'를 위하여 발간하고 있는 국외 현안보고서입니다.
-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은 주요 국가의 최신 교육정책 및 교육정보 중 국내에 정책적 시사점을 주고,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제를 선정하여 전문적으로 분석·제공함으로써 교육정책 수립 및 집행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교육정책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2. 2017년도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발간 목록

호수	제목	집필자
1호	싱가포르 교육과정의 특징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백선희(경인교대)
2호	북유럽 국가의 교육체제 분석을 통한 소프트웨어 교육 발전방향 고찰: 에스토니아,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를 중심으로	배영권(대구교대) 신승기(금락초/조지아대)
3호	덴마크의 행복한 교육과 한국교육에의 시사점	정윤경(전주교대)
4호	일본 학교건축 정비 제도의 발달동향 및 활용 현황 고찰로 본 시사점	류호섭(동익대)
5호	독일의 청소년 정치참여를 통한 민주시민교육: 'U18 프로젝트'와 '청소년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조철민(성공회대)
6호	노르웨이 및 네덜란드의 문화예술교육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윤주(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16년도 이전 발간자료는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정책네트워크 소개

◎ 교육정책네트워크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교육 관련 기관 간의 인적교류, 공동연구, 정보공유를 위한 협력 체제를 말합니다[「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규정」(교육부 훈령 제179호)]. 즉, 인적교류, 공동연구, 정보공유, 정책지원활동 등을 통해 교육정책의 현장 착근과 공교육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연구기관 등의 협력체제로서 구축된 네트워크 시스템입니다.

◎ 교육정책네트워크 참여기관은?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교육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www.edpolicy.net>



교육정책네트워크

개방, 공유
소통, 협력

교육정책네트워크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관련 유관기관 간의 인적교류, 공동연구, 정보공유를 위한 협력체제를 말합니다.



<http://www.edpolicy.net>

QR코드로 교육정책네트워크를 간편하게 만나보세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하는 일

교육정책발굴

-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교육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협의체 운영**



정책 · 현장지원

- 행복교육 현장토론회
- 교육정책 컨설팅
- 교육현장 모니터단



공동연구

- 국가, 시·도, 학교현장의 주요 현안 개선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 수행
- 교육현장지원연구**



교육정보 공유

다양한 교육이슈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소통의 장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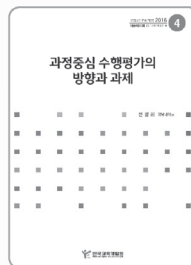
(월간)교육정책포럼

8개국의 최신 교육뉴스 및 교육정책 자료 제공



메일진 해외교육동향

주요 교육쟁점에 대한 분석 및 방향 제시



이슈페이퍼

외국의 교육정책 분석 및 시사점 수록



세계교육정책인포메이션

mailzine@kedi.re.kr로 구독신청을 하시면 매일 신속하고 질 높은 국내외 교육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방문하시면 자세한 설명과 다양한 교육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CP 2017-01-05

2017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5호

**독일의 청소년 정치참여를 통한 민주시민 교육:
'U18 프로젝트'와 '청소년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연구센터

Tel : 043-530-9587

Fax : 043-530-9470

Homepage : <http://www.edpolicy.net>

발행일 2017년 11월

발행처 한국교육개발원

주 소 (27873)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교학로7

발행인 김재춘

등 록 1973. 6. 13. 제16-35호

인 쇄 리드릭 02-2269-1919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